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삼성중공업, LNG선 1척 수주

삼성중공업은 팬오션으로부터 1,993억원 규모의 174,000CBM급 LNG선 1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함. 인도기한은 2023년 4월까지라고 보도됨. 팬오션은 포르투갈 에너지업체 Galp와 체결한 장기 대선 계약에 최신 사양의 LNG운반선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선박뉴스)

## 한국조선해양, 메가 컨테이너선 6척 수주

한국조선해양이 아시아 소재의 선사로부터 15,000TEU급 LNG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함. 총 계약규모는 8,910억원이며 인도기한은 2023년 9월까지라고 공시됨. (선박뉴스)

## 한국 조선업, 철치부심 끝 희망 쏘다

한국이 2020년 전세계 수주 1위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지난 해 전세계 선박 발주량 1,924만CGT 중 한국이 819만CGT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특히 LNG운반선, VLCC,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에서 높은 경쟁우위를 보였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Zhoggu, 컨테이너선 20척 발주 계획

중국 Zhoggu Logistics가 2022년 하반기~2023년 초 인도 조건으로 4,600TEU급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척당 3,500만달러 미만의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 약 7억달러는 기업 공개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 LNG carrier rates head higher as charterers search for ships

LNG선 공급 부족현상으로 LNG운임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됨. 브로커들에 따르면, 최소 다음달까지 용선 가능한 LNG운반선이 제로(zero)에 가깝다고 보도됨. 제안되는 용선료는 일일 20만달러까지 제시되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 Tanker tonne-mile picture brightens for next two years

어려웠던 2020년과 달리 향후 2년간은 톤마일(Tonne-mile)이 증가하면서 탱커 시장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보도됨.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1년 초반 탱커시장의 회복에 대해서는 변수가 남아있으나, 2022~23년까지 운임 개선은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됨. (TradeWinds)